

뱀으로 전달되는 기생충병



趙昇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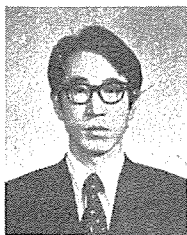
뱀을 먹었을 때 스콜라지생킨다
" " " " " " " " " " " " " " " "

뱀을 날로 먹으면 기생충병에 걸리는 수가 있다. 수줍고 암전한 여인들이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고 눈을 가리고 법석을 떨 일이지만 세상에는 흔히 생각하는 바와는 꼭 같지는 않은 면이 있는 듯하다.

뱀을 날로 먹는 것은 주로 어린 남자이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라고 하며 상을 징그리며 먹는 분들도 있지만 신바람이 나서 먹는 경우도 있다.

논밭이나 산에서 뱀을 보면 웬 떡

이나하고 또 한세상 다 겪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흔한 신경통, 약으로 요즈음에는 텔레비존에 각종 진통제가 광고로 나오고 있으나 옛날 효녀 효자들은 날뱀이 특효가 있다고 하여 많이 갖다드려 치료하게 하여 자식된 도리를 다 했었다. 신경통 뿐만 아니라 결핵에 걸린 사람이나 허약한 사람 들도 뱀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중에는 뱀을 먹어 몸에 이롭게 하겠다는 사람의 수가 뱀을 먹을 생각도



조승열 교수

않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훨씬 많다는 사실인것 같다. 아마도 이러한 습관은 일부에서 옛날부터 면면히 이어 내려 온듯하다.

옛날에 기근과 흉년과 역병이 차례로 찾아오던 시절에 이러한 습관이 부족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 시절에는 실제로 효험을 많이 보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에도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런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인듯하다. 그것은 뱀이나 개구리를 날로 먹어 걸리는 기생충병이 아직도 우리나라 병원이나 의원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다.

뱀을 날로 먹어 걸릴 수 있는 기생충병은 네가지가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하나 하나 설명하여 나가겠다.

1. 스파르가눔 증.

이 기생충병은 개의 창자에 살고 있는 촌충의 한 종류인 만손 열두조충이라는 것의 애벌레에 사람이 걸리는 것이다. 흰색 테이프 같은 것이 가로 주름이 있고 길이는 10cm에서 길면 20cm 이상까지도 되는 아주 큰 애벌레이다. 이 애벌레는 뱀이나

개구리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개구리 중에는 참개구리에서 100마리중 4~5마리 정도가 넙적다리에 주로 1-2개 걸려있다.

뱀증에는 개구리를 많이 잡아 먹는 유�혈목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등에서 특히 많이 걸려있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들 뱀에서는 50% 이상이 스파르가눔 애벌레를 갖고 있고 한마리에 5~10마리 정도씩 갖고 있다. 뱀의 피부를 벗겨 보면 이 애벌레는 피부 안쪽에도 있고 근육사이에도 박혀 있으며 내장 틈에서 발견 되기도 한다. 이 애벌레는 사람에게 보는 것 보다는 가늘지만 자세히 보면 살아 움직인다. 사람들이 뱀을 날로 먹을때 이 애벌레는 사람에게 들어 오게 되는데 사람 창자의 벽을 뚫고 다시 더 큰 애벌레로 자라서 온몸의 여기저기를 천천히 움직이며 돌아다닌다.

걸린 사람에서 보통 1-2 마리만 발견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많으면 15마리 정도까지 걸리는 수도 있어 여기저기에서 시시때때로 수술로 꺼내게 된 경우도 있다. 사람에서는 주로 피부밑 또는 근육에서 발견되는데, 장소는 배, 가슴, 등, 넙적다리, 음낭등이 보통이지만 내장에서 심한 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뇌나 척수에 들어가거나 눈에서 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이병 은 뱀을 먹고 몇달안 에 발병하기도 하지만 십수 년이 지나고서야 탈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병이다. 즉, 만성경과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병은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서 아픈 곳을 수술하고 나서 애벌레를 꺼내 고서야 진단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이고 수술전에는 환자나 의사나 알고 수술하는 경우는 드물다. 의사들은 이 애벌레가 나오면 “당신 전에 뱀 먹은 일 없으십니까?”하고 묻게 되는 것은 이 병이 대부분 뱀을 먹어서 걸리기 때문이다.

2. 줄촌충(메소세스토이레스)증.

이것 은 뱀이나 도롱뇽, 개구리 등의 내장에서 발견되는 흰색의 사흡반유충이라는 애벌레가 사람이 뱀을 날로 먹을때 들어와서 사람 창자에 기생하는 병이다. 사흡반유충이라는 것은 길이가 1mm 안팎인 작은 애벌레인데 이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 작은 빨판이 네개가 있는 머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애벌레가 무자치라는 뱀에서 발견된 일이 있고 실제로 이 줄촌충이라는 것에 걸린 사람도 발견되었다. 이 환자는 살모사의 내장을 날로 깨물쳐서 먹은 일이 있었다고 하며 대변에 흰색이 나는 작은 벌레지가 토막토막으로 계속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었다. 이 병은 뱀을 먹었을때에 걸릴 수도 있으나 비교적 드

물다.

이것 은 디스토마의 일종으로 특히 유혈목이나 살모사 등의 위 주변에 그 애벌레가 수없이 많이 발견된다. 애벌레는 길이가 0.2-0.3mm 정도로서 흰점으로 보인다. 애벌레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5-6일이면 성충으로 자라 알을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사람 창자에 염증이 일어나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병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것으로 원래 이 애벌레는 쥐의 창자에 가서 기생하여 성충이 되는 것인데 사람에게서도 성충이 되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4. 악구충(나토스토마)증.

이것 은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는 많은 기생충으로 뱀을 날로 먹을 경우 감염 될 수 있는 애벌레 감염증이다.

악구충의 제 3기 유충이라는 애벌레가 뱀에서 사람 몸으로 들어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며 특히 사람의 뇌, 눈등에 많이 감염되면 사망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뱀의 기생충, 특히 애벌레 기생충중에는 사람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다.

<필자=중앙의대

기생충학교수·의박>